제5강 하이데거 : 진리의 신전

(1교시) J_Jgjin03_031229_01

◎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

독일의 철학자. 20세기 실존철학의 대표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는 '존재 망각'의 역사이다. 서구의 근대 철학은 그리스인이 가졌던 '존재 체험'을 완전히 망각해버렸다. 이 망각에서 벗어나 한때 그리스인들에게 열렸던 근원적인 존재의 체험을 상기하는 것, 그것이 하이데거의 철학적 기획이며 그것은 그의 논문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시도된다.

◎ 존재 망각

하이데거는 근원적인 세계와 파생적인 세계를 구분했다.
근대 철학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분명하게 나뉘어서 주체가 객체를 분석한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론적 주체에 앞서 사물의 의미를 실천적으로 해석하는 **실존적 주체야말로 훨씬 근원적**이다.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은 전통적인 주관-객관의 방식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숙련된 목수가 망치질을 할 때, 그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마주 앉은 것이 아니며 망치와 못을 각각 분석하거나 이성적으로 사고하지도 않는다. 자연스럽게 망치질을 할 뿐이다. 이는 인간이 세계에 대처하는 방식을 이성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이미 실천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이데거는 인식론적 근대 형이상학을 존재 망각의 역사로 규정하고 비판, 전복함으로써 새로운 탈근대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

비트겐슈타인은 일상 언어가 세계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오직 자연과학에 토대를 둔 이상 언어만이 세계를 참되게 기술할 수 있다고 보고 일상 언어의 한계를 극복한 이상 언어를 만드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언어는 일상 언어를 밑바탕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근본적으로 수정을 요한다. 이것이 존재 망각의 대표적인 예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J_Jgjin03_031229_02

◎ 고흐의 「구두」와 도구 존재

일상에서 구두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구두를 신고 벗고 있으며 이는 이미 구두에 대해 실천적 해석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또 한편 구두라는 **도구에 대한 존재 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흐의 작품 속의 구두에서는 농민의 삶과 세계, 대지와 자연을 볼 수 있다.

"닳아 삐져나온 신발 도구의 안쪽 어두운 틈새로부터 노동을 하는 발걸음의 힘겨움이 굳어 있다. 신발 도구의 옹골찬 무게 속에는, 거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한결같은 모양으로 계속해서 뻗어 있는 밭고랑 사이를 통과해 나아가는 느릿느릿한 걸음걸이의 끈질김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다. 가죽 표면에는 땅의 축축함과 풍족함이 어려 있다.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들길의 정적감이 신발 밑창 아래로 밟혀 들어간다. 대지의 침묵하는 부름, 무르익은 곡식을 대지가 조용히 선사함 그리고 겨울 들판의 황량한 휴경지에서의 대지의 설명할 수 없는 거절이 신발 도구 속에서 울리고 있다. 빵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데에 대한 불평 없는 근심, 궁핍을 다시 넘어선 데에 대한 말없는 기쁨, 출산이 임박함에 따른 초조함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의 전율이 이러한 신발 도구를 통해 스며들어 있다. 대지에 이러한 도구가 귀속해 있고 농촌 아낙네의 세계 안에 이 도구가 보호되어 있다."

-「예술작품의 근원」 중

고흐의 작품은 구두의 '도구 존재'를 삶의 연관성들 속에서 비로소 드러내준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두라는 존재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것은 **작품이 말을 하여 세계를 저절로 열어 보인 것**이다.

◎ 재현의 진리에서 현시의 진리로

근대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흐의 그림은 구두의 재현, '존재자'의 재현이지만, 고흐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진리는 재현, 모방의 진리가 아니다. '얼마나 실제와 닮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작품의 진리는 '존재자'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그것의 '존재'에 관한 진리,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에 관한 진리이다. 즉 존재자의 재현이 아닌 **존재 체험 그 자체**를 말하며,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에서의 진리는 재현이 아니라 **현시(現示), 개시(開示)의 진리**라고 말한다.

작품은 존재자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탈은폐성으로 인해 진리가 발생한다. = **"예술이란 존재자의 진리가 작품 속에 정립되는 것"**

www.artnstudy.com

(3교시) J_Jgjin03_031229_03

◎ 예술 작품의 진리

하이데거에게 있어 예술 작품의 진리는 보다 근원적인 것이고, 예술가는 일종의 영매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즉 예술가는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알 수 없는 근원에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매개체이다. 이는 곧 **미적 주체성의 해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진리는 사건이고 발생하는 것이다.

◎ 진리의 신전

분명히 고흐의 그림은 구두의 재현이다. 하이데거는 진리의 발생 사건을 새로이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며 그리스 신전을 예로 든다.

모방론에 따르면 신전의 신상은 신을 닮아야 하지만 인간은 신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신상은 모델이 된 인간의 모방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의 재현도 아니다.
신전은 당시 그리스인들의 종교이자 문화이자 삶의 터전이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신을 본떠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듦으로써 신을 비로소 존재하게 하고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세웠던 것이다.
이렇듯 예술(작품)은 **"하나의 세계를 건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지의 설립

신전이 우뚝 솟음으로써 비로소 거센 바람과 빛과 어둠, 허공의 공간이 눈에 보이게 되고 파도의 광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신전은 대지가 대지답게 나타나도록 해준다.
작품은 대지를 대지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대지를 설립한다.

하이데거는 근대적 예술 수용의 모델 역시 붕괴한다. 예술 감상의 본질은 작품을 미적으로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작품을 작품이게 해야 한다. 이때 하이데거는 '보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존'이란 진리를 진리이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은 작품이 완성된 후에 시작되는 사후적 과정이 아니라 작품을 작품으로, 진리를 진리로 성립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www.artnstudy.com